

“군산시는 예산이 남아도는가?”

환경보존 군산시의원, 5분 발언... “시설물의 노후화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 남겨선 안돼”

군산시의회 환경보존 의원은 16일 제 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어쩌다 이런 일이...19? 군산시는 예산이 남아도는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환경보존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32억 5천만원을 들여 장자도에 부유식 낚시터인 ‘해상낚시공원’을 조성하였다”며 “해상낚시공원은 2014년 해양수산부 사업 완료 후 낚시공원 시범운영 실적 저조와 태풍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운영 중단,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낚시터 보수와 해안산책로 연장사업 및 재개방, 2020년 8월 강풍으로 인한 시설파손 및 출입 통제, 2023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데크 및 진입로 철거 과정을 거치며 현재는 방치되어 부식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환경보존 의원은 16일 제 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어쩌다 이런 일이...19? 군산시는 예산이 남아도는가?’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강풍이 부는 지역에 부유식 낚시터를 설치하고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와 전망대를 설치하였으나, 누구 하나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2020년 재해복구공사비 4천 9백만 원, 2023년 5월 데크 및 진입로 철거 1천 백만 원의 예산만 소요되었다”며 “결국 이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 처분 내용연수인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차례로 철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예산 낭비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군산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237억 원을 들여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즉,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매립장 및 주민편익시설을 완공하였다”며 “이 가운데 5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편익 시설로 점질방파 사나나 및 상가를 조성하였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2021

년 2월부터 주민지원협의체(주지협)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운영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도 않았고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운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뿌연게 먼지가 쌓여가는 공실 상태에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2022년 8월 누수, 외벽 불량에 대해 시공사 하자보수, 2023년 11월 누수로 인한 시공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기본적인 관리비만 연 3천만 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며 “5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하고도 마땅한 운영방안 없이 3년 넘게 공실 상태로 방치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등 시설을 설치하며 지역주민을 위해 건립된 주민편익 시설은 초기 에너지 활용 계획에 따른 위치도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위치도 아닌 새만금컨벤션센터 인근에 건설되었다”며 “지나가던 사람 누구도 이곳이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며, 지역주민이 활용하기에도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보존 의원은 “군산시는 도대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길래 후속 조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냐, 사업 과정에서 문제점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냐? 적절한 공모사업 추진 방법을 알기나 하는 것이냐?”면서 “군산시는 향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후속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방치하고 결국 철거하게 하거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행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수해 현장에 대규모 군 인력 투입... 긴급 수해 복구

망성면 · 용안면 · 용동면 일대... 35사단 등 1900여 명 지원

익산시 수해 현장에 대규모 군 인력이 투입되면서 긴급 복구 작업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북부권역 일대에 이날부터 육군 제35보병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군 장병 1,900여 명이 투입된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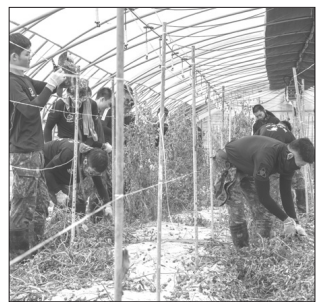
시는 전날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민·관·군 간담회를 열고 관련 세부 내용을 협의했다. 앞서 제35보병사단은 폭우로 인한 통합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이날 15~19일도 예정됐던 화랑 훈련을 연기하기도 했다.

군은 망성면과 용안면, 용동면 일대

를 집중 작전 지역으로 선포해 인력을 투입한다. 이들은 오전 동안 하천에서 유입된 토사와 수확할 수 없게 된 농작물을 제거하고, 침수된 주택이나 농가 시설 내부 쓰레기를 치우는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복구작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발차 등 지역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식사와 간식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35사단 등 지역 군 장병들은 지난해 익산시가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을 당시에도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철도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

익산시-한국철도,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익산시가 철도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해 한국철도와 힘을 모은다.

시는 한국철도와 16일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23개 지자체장, 행안부·농식품부·문체부·국토부 차관, 코레일·농어촌공사·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철도 연계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구성 및 운영 지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주요 관광지 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기반시설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철도관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TX 연계를 통해 익산의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용동면 수해 농가 찾아 ‘구슬땀’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6일 오전 수해지역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날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60여 명은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용동면 구산리의 상추 재배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 안에서 비닐을 수거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복구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수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농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것과 장마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김경진 의장은 “피해지역이 신속히 복구되어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

군산시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응, 하수도 기반 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착수한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반영해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곡동 주거지역 개발, 전북대 병원 입지, 새만금 산업단지, 신공

항 등 각종 관련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하수도 수요 대응 △면 지역 하수도 보급을 향상 △미처리 구역의 도시 지역의 하수도 보급도 감안해 계획안을 변경할 방침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극지성 호우 대비와 관련해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군산시 방재성능목표(78mm/hr)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습침수구역 개선계획을 수립중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국립군산대, 2024학년도 국토대장정 발대식 개최

국립군산대학교는 2024학년도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지난 15일 오후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립군산대 국토대장정은 총학생회 주관으로 학생 스스로 소용의 계기를 마련하고 체력증진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건전하고 새로운 대학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부총학생회장 임주예의 사회로 이장호 총장, 강태성 총동문회장, 나윤규 총동문부회장, 김이레 총학생회장 등 참가 학생 56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이레 총학생회장의 학생대표 선서와 총장 격려사, 총동문회장 및 총동문부회장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54명의 참가자를 공개 선발하여 서해안 일원을 탐방한다. 출발은 7월 22일에 하며 26일까지 5일간 총 80km를 이동하게 된다.

국토대장정 전체 이동 경로는 국립군산대학교를 출발로 서천 종합운동장-웃점항-방포항-청포대해수욕장이다. 완주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국토대장정 80km 완주 학생’ 완주증을 수여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익산시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받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원대상품목인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지난해 지원 대상 품목을 직접 사육·판매해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오는 8월 9일까지 축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